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중전기기 수출촉진 회의 개최

전 기조합(이사장 李龍熙)은 지난 9월 3일 서울 팔레스호텔 12층 코스모스룸에서 이용희 이사장을 비롯하여 (주)광명기전 장순명 회장 등 조합원 대표 11명과 통상산업부 한영수 생활공업국장·전기공업과 이우공 과장·신종근 서기관 그리고 전기공업진흥회 최희소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전기기 수출촉진을 위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용희 이사장은 「오늘의 이 자리는 중전기기업계의 수출증진 및 시장다변화를 통한 무역확대로 시장개방화에 대비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중전기기 산업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동감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국가산업의 근간산업인 중전기기 산업이 앞장서서 극복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출에 대한 정부의 각종 행정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첨단기기 및 자동화설비의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인하 ▲발전기 할당과세의 무세화(400kW 이상)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시 정

부 지원 ▲한전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의 지속 ▲수입품에 대한 시험·검사 강화 ▲규격의 한글화 등을 건의했다.

통상산업부는 이와 관련 최근의 중전기기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한편 지속적인 수출촉진을 위해 △외국과의 상호인증 협약으로 수출 애로 요인 제거, △해외시장 정보지원 체계 구축으로 업계 경쟁력 향상, △중전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체계적인 훈련,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전략 상품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중전기기 우수제품 홍보활동 강화지원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성전선(주)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세계화 대비

大成電線(대표 梁始伯)은 최근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세계화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회사는 지난 8월 12일 올해들어 베트남 「대성베트남전력케이블」과 탄자니아의 「탄자니아대성케이블社」 설립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을 위한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성전선은 이에 따라 국내조직은 중전 1개 연구소, 7개 본부, 18개팀에서

1개 연구소, 6개 본부, 15개팀으로 구성하고 기획본부와 재경본부를 통합 경영관리본부로 개편했다.

또 경영관리본부에는 경영기획팀과 회계팀을 두고 생산본부의 전력팀과 특고압팀을 통합, 전력팀으로 운영키로 했다.

대성은 이와 함께 해외부문에는 영업 2본부의 해외영업 1팀과 해외영업 2팀을 합병, 해외 영업팀으로 하는 등 조직을 대부분 축소, 통폐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8월 12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인사발령 내용으로는 ▲베트남대성케이블 사장에 이종건 대성전선부사장, ▲베트남대성케이블 공장장에 김동규 대영전선본부장이 해의 파견되고, ▲기술연구소장에는 백종원 생산본부장이, ▲생산본부장에는 이철희 품질보증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LG전선(주)

무독성 난연 配電 케이블 개발

LG 전선(대표 權炆久)은 최근 지하 매설용 전력케이블로는 처음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유해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독성 난연 지중 전력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LG전선의 무독성 난연 지중 전력케이블은 우리나라 기간 配電網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XLPE) 절연 22.9kV급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터널식 전력구나 화재로 인한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플랜트, 정유공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LG전선이 지난 '96년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은 폴리올레핀계 난연재료를 사용해 유해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연기와 냄새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李仁鎬(전력설계팀)팀장은 설명했다.

LG전선은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이 한국전기연구소의 전기특성 및 안정성 시험은 이미 완료했고 현재 난연케이블 부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품질 규정을 적용해 검토하고 있는 한국 전력공사에 곧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선은 또 올해 말부터는 현재 건설중인 영국 웨일즈 공단의 전력 공급용으로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지하 매설 케이블의 화재 사고와 이로 인한 통신과 전력 등 기간 기능의 마비로 경제적 손실과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의 개발로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중공업(주)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획득

**현** 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사장 유재환)가 모터업계 최초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3상 유도전동기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득,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효율 전동기 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국내 모터업계 최초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 동종업계의 고효율전동기 개발과 보급확대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일반 산업현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일반전동기보다 효율이 2~10% 이상 높은 고효율유도전동기의 보급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의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업체는 현대중공업을 비롯 조명업계에서 금호전기, 신광필립스 등 3개사이며, 제익조명 등 10개 업체들이 인증획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의 산업계 고

효율화정책에 발맞추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가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시행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대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안내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이천전기(주)

### 회사 상호명과 CI를 변경

**利** 川電機(대표이사 사장 柳熙東)가 지난 9월 2일부터 회사 상호명과 CI를 변경했다.

이번에 이루어진 변경배경은 삼성그룹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와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이미지 제고 차원으로 이루어진 이번의 조치는 이천전기의 또다른 의지 표현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천전기는 1938년 설립된 이후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펌프, 수배전제어반, 수처리·환경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중전기 업체이다.

이천전기는 금년을 정상탈환을 위한 재도약의 시기로 하여 2005년 국내 최고 수준의 중전업체를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 디디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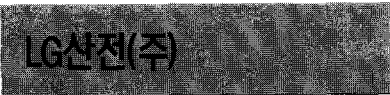
◆ 상호 명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 이천전기주식회사

◆ CI 개정

(변경전)

(변경후)



차세대 차단기/개폐기 개발

LG 産電(대표 李鍾秀)이 순수 자체 기술로 세계적 품질을 갖춘 대용량 차단기 및 개폐기(브랜드명 : Meta-MEC 시리즈)의 개발에 성공하고 9월부터 국내외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독자 모델로 개발한 Meta-MEC 시리즈는 배선용 차단기 75개 기종, 누전 차단기 9개 기종, 전자 개폐기 75종(전자 접촉기 57개 기종 및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 18개 기종 - 전자 개폐기는 전자 접촉기와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로 구성됨) 등 총 159개 기종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유럽 공동체의 품질 인증 마크인 CE마크 및 중국의

품질 인증인 장성 마크(CCEE 규격)를 취득할 예정이어서 향후 치열해질 국내 차단기/개폐기 시장 수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되었음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LG산전의 차단기/개폐기 독자 모델 개발은 국내 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분야 국내 총시장 규모는 약 550억으로 추산되는데 향후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제품의 침투가 우려되어 왔으나, LG의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제품 출시로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전력을 받아서 각각의 부하에 맞게 나누주는 배전반의 핵심 부품으로 과부하가 걸릴 때 전력을 끊어주는 차단기와 외부로부터의 신호에 따라 전력을 끊고 이어주는 개폐기는 전력 설비의 핵심 기기이지만 전세계 각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간에 호환성이 없어 사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EC와 선진 업체들이 제정한 것이 "IEC 947" 번 LG산전이 개발한 Meta-MEC시리즈는 이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LG산전은 이번 제품 개발시 설계, 영업, 마케팅, 서비스, 구매, 제조 등 쏠관련 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국내 350여 개 업체 및 해외 6개국 50여 개의

배전반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접수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로써 통상 3~5년 정도가 소요되던 개발 기간이 1년 반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사용자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국내 및 유럽, 동남아 등 6개국에 총 90여 건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기술 축적에도 큰 성과를 보였다.

Meta-MEC시리즈 차단기/개폐기는 선진 업체의 제품과 동등 이상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정격 전류를 변경할 수 있어 납기 및 물류 관리의 편리성이 최대한 반영되었으며, 사용자가 직접 부속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객 지향적인 제품이다. 또한 기종 및 부속장치가 다양화되었으며, 트립 버튼을 추가되어 사용환경에 따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차단용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8~20%),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의 크기를 동일하게 개발하여 필요에 따라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LG산전은 이번 Meta-MEC시리즈의 개발로 550억 정도 규모의 국내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함은 물론 유럽 공동체의 품질 규격인 CE 마크 및 중국 국가 규격이 CCEE 규격을 획득할 예정이어서 약 2조 5천억으로 추정되는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으로 있다. ■